



김선빈 재활훈련 돌입

“후반기 기대하세요”

KIA 김상훈·양현종 등 복귀 준비 ‘V11 열정’ 폭염속 몸만들기 구슬땀

KIA의 ‘작은 거인’ 김선빈이 후반기 부활을 위한 첫 걸음을 뒀다. 내야수 김선빈이 19일 재활군에 합류해 그라운드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김선빈은 지난 5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코뼈와 잇몸뼈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고 그동안 병원 신세를 지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정상적인 훈련은 하지 못하지만 가벼운 웨이트 등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선빈은 “팬들이 많이 격려했는데 빨리 복귀하는 게 팬들의 바람이고 응원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경기장에 나오니 빨리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그라운드에 있다. 김선빈은 KIA의 경기를 보면서 그라운드에서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있다.

8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삼은 김선빈은 “매일 경기를 보고 있는데 팀이 잘 나가니까 기분이 좋다. 올스타전에 나가지 못하게 돼서 섭섭하지만 골든글러브의 꿈은 아직 접지 않았다. 건강할 모습으로 복귀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한낮 기온이 섭씨 35도가 넘어선 이날 김선빈 외에도 김상훈·양현종·조재수·신용운 등 재활군은 후반기를 노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안방을 지켜왔던 주장 김상훈은 오른쪽 아킬레스건과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아 지난 15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팀 사상 처음으로 ‘좌완 3년 연속 10승’에 도전하고 있는 양현종은 왼쪽 어깨 통증에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14일 재활군이 됐다.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반기 마지막을 그라운드에서 보내지는 못했지만 김상훈과



양현종



김상훈

양현종은 각각 V11 그리고 남은 4승을 위해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각각 어깨와 손가락이 좋지 않은 신용운과 조재수도 엔트리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마운드 한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던 투수 류기환은 당장 올 시즌 그라운드를 밟을 수는 없지만 기본 좋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같은 수술을 받아 함께 재활을 했던 선배 한기주가 1군 무대에서 마음껏 공을 뿌리고 있는 만큼 한승혁의 각오도 남다르다.

한승혁은 “재활이 잘 진행돼서 2주 전부터 30m 투스를 소화하고 있다. 공을 다시 던지게 돼서 행복하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 KIA 선수 없네?

이범호 허리통증 포기 김상현·최희섭은 불참

‘올스타전의 백미’ 홈런 레이스에 출전하는 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2011시즌 홈런왕을 다투고 있는 롯데 이대호와 삼성 최형우가 올스타전에서 대결을 벌이고, 홈런부문 공동 4위(14개) LG의 거포 이병규·조인성도 한방 싸움에 나선다. 한화의 최진행과 넥센 강정호, SK 박재권, 롯데 강민호도 홈런 레이스에 참

가한다.

KIA는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홈런 레이스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KIA 3번타자 이범호가 홈런 3위에 올라있지만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레이스에서 130m의 대형홈런을 터트리며 최장 거리를 받았던 최희섭과 2009년 홈런왕 김상현은 성적 부진 등으로 올스타전에 초대받지 못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는 삼성 양준혁과 SK 박재홍이 통산 3차례 우승으로 최다 우승 기

록을 보유하고 있고, 두산 김현수는 지난해 10개의 타구를 넘겨며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이번 홈런 레이스는 예선전 7아웃 동안 1·2위를 가린 후, 올스타전 본경기 5회말 종료 후 10아웃의 결승전으로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준우승자에게는 1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결승에서 가장 멀리 홈런 타구를 날린 선수에게는 DSLR카메라가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성군청 김경수 실업 역도 2관왕

보성군청의 김경수가 2011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경수는 19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85kg급에서 인상 155kg에 성공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용상에서 180kg를 든 김경수는 합계 335kg으로 경기포천시청의 정대홍(합계 332kg)을 꺾으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경수는 전 소속팀 용인시청의 해체된 뒤 올해부터 보성군청 소속으로 뛰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덜랜드 지동원 신선했다

영국 언론, 연습경기 출전 호평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그로 유럽 축구 무대에 진출한 지동원(20·선덜랜드)이 그라운드에서 첫선을 보인 플레이에 대해 소속팀 감독과 현지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다.

지동원은 18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빌레펠트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와의 연습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고 선발출전해 45분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그는 4-5-1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전반 23분 상대 골키퍼가 앞에서 공을 떨어뜨린 기회를 잡았으나 수비수가 재빨리 걸어내는 통에 골을 놓쳤다. 선덜랜드는 빌레펠트와 1-1로 비겼다.

스티브 브루스 선덜랜드 감독은 “지동원에게는 문화와 언어 학습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빨리 적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 독일에 와서 두드러지게 재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팀과 어우러지면 기량이 훨씬 더 돋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잉글랜드 지역지 ‘선덜랜드 에코’는 “지동원의 기량이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지동원이 처음에는 산만한 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볼 컨트롤이 깔끔해졌고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빌레펠트와의 친선경기에서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고 첫 출전한 지동원.

광주 FC 이승기 2주 연속 베스트 11

광주 FC의 이승기가 2주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1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18라운드 베스트 11에 광주 미드필더 이승기가 이름을 올렸다. 17라운드 강원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던 이승기는 18라운드 1위 전북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기는 연맹으로부터 ‘저품질 골과 과감한 슈팅’으로 리그 선두 팀에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베스트팀은 7골을 몰아넣으며 대전전 상대로 7-1 승리를 거둔 경남이 선정됐고, 성남과 제주(2-2 무승부)의 경기가 베스트 매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꽃처럼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주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스페인팀이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자유종목 연기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